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에 따른 수화의 다양성

허일*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한국어 동사 특성과 수지 한국어 |
| 2.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 | 3.3 한국수어 동사 특성과 한국수어 |
| 2.1 한국어의 동사 특성 | 4. 결 론 |
| 2.2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 | |
| 3. 수화의 다양성 | |
| 3.1 수지 한국어와 한국수어 |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수화를 언어학적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와 수지 한국어로 나누어 수화 표현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기반으로 수화가 표현되는 수지 한국어 문장의 특성을 한국어 동사의 특성(참여자 수와 역할, 문장의 종류, 시제, 존재와 낮춤, 부정, 의미의 추가, 동사의 위치)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수어 문장의 특성을 한국수어 동사의 특성(동사의 종류, 문장의 종류, 시제, 존재와 낮춤, 부정, 의미의 추가, 동사의 위치)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지 한국어와 한국수어 문장 표현의 다양성이 어떤 동사 특성에 따른 것인지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한국수어, 수지 한국어, 동사 특성, 다양성

*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1. 서론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고, 공용어이며, 한국에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이다(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정).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농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이다.

한국수어는 시각 언어로서,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손(handshape, location, orientation, movement)과 비수지기호(Non-Manual Signals, 얼굴 표정, 눈, 눈썹, 코, 입, 입술, 볼, 턱, 시선, 몸의 방향, 공간 설정 및 활용 등)를 조음자(articulator)로 사용한다⁶⁾.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한국수어를 보존하고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대화하고, 수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수화’ 대신 ‘수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해당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다양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손을 표현양식으로 사용하고 손을 움직여 대화를 하고, 한국어-수화 통역을 하는 경우에도 ‘수화’ 또는 ‘수어’라고 불리는 언어가 반드시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가 아닐 수 있다. 한국수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화가 표현되고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수어(KSL)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수지 한국어’나 ‘손 한국어’, ‘수지 구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수화 중 한국어 기반으로 표현되는 수화를 분류하기도 한다^{9), 10)}.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의 음성 버전, 문자 버전(한글), 점자 버전(한글점자) 등이 있듯이 한국어의 손 버전(Signed Korean)에 해당하는 뜻으로, 한국어인데 손을 표현양식으로 한 한국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이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SK)는 한국수어 단어를 차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수어 단어를 한국수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한국수어의 뜻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한국어 단어)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수지 한국어는 한글점자처럼 한국어를 손(한글점자의 경우 6점자)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자가 수지 한국어를 산출할 때는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한국어로 떠오른 생각)을 통역(interpretation)이 아니라 음역(transliteration)을 하게 된다. 즉, 한국어 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국어 단어 나열 순서에 따라 한국어 단어(또는 형태소)에 해당하는 한국수화 단어를 찾아 나열해 간다. 이 때 수지 한국어(SK)는 한국어(Korean)이므로, 문장의 구성과 완성, 문장 성립 여부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¹⁰⁾.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의 어순과 단어 특성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고 완성하므로, 한국어 동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KSL)는 수지 한국어(SK)와 달리, 한국어가 아니며,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단어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켜 가며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언어인 한국수어 문법에 따라(한국어 문법과는 다르다), 한국수어 문장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특히 한국어 동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수어 동사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수어 문장을 표현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화’의 다양성이 왜 존재하는지 언어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지 한국어와 한국수어가 각각의 동사 특성 혹은 동사에 표현되는 정보에 따라 어떤 수화 문장을 산출하는지 살펴보고자, 그 차이를 동사 특성에

비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

2.1 한국어의 동사 특성

2.1.1 동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

동사(Verb)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다. 학교 문법에서는 동사를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기술한곤 한다. 즉, 동사는 움직임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무엇이 어찌한다.’의 문장에서 서술어 자리인 ‘어찌한다’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이다^{1) 2) 3)}.

1) 참여자 수와 역할

동사는 다양한 행위를 나타내고, 그 행위에는 참여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동사는 참여자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그 참여자 수를 결정짓는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가 ‘행위의 주체’ 하나만을 요구하는 경우(자동사, 참여자 하나)가 있고,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가 행위의 주체와 함께 ‘행위의 대상’도 요구하는 경우(타동사, 참여자 둘)가 있다. 대체적으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문장에서 주어로 등장하고, 그 행위의 대상은 목적어로 나타난다.

- (1) 자동사: 뛰다, 걷다, 가다, 놀다, 살다 ……
- 타동사: 잡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

2) 문장의 종류

한국어 동사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며,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어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어간에 변하는 어미가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활용이라 한다. 동사는 활용을 통해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

<표 1> 동사 활용과 문장의 종류

종결형 어미	가다	문장의 종류
평서형	가-ㄴ다	평서문
의문형	가-(느)냐	의문문
명령형	가-(아)라	명령문
청유형	가-자	청유문
감탄형	가-는구나	감탄문

출처: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2008, p.73

3) 시제

한국어 시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미래시제로 구분된다. 한국어의 시제 표현 방법은 ① 동사 종결형 어미에 의한 표현, ② 관형사형 어미, ③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통해 표현된다. 즉, 동사에는 시제 정보가 담겨 있다.

한국어 과거시제는 어간에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었(았, 였)’을 붙여 표현되며, 미래시제는 ‘-겠’ 또는 ‘-(으)르 것/거’를 붙여 표현된다. 또한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으)르, -던)을 붙여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시제와 상이 나타난다.

- (2) 현재형: 학생에 학교에 간다.
 지구는 돈다.
 과거형: 어제 비가 왔어요.
 나는 작년에 부산에 갔었어요.
 미래형: 내일은 집에 있을 거예요.
 오늘 영화 구경을 갈 거예요.

<표 2> 시제에 따른 동사의 활용

시제	종결 어미	관형사형 어미
현재	간다 갑니다 가요 가지 않아요	먹는(지속)
과거	갔다 갔습니다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먹은(완료) 먹던(회상)
미래	가겠다 가겠습니다 가겠어요 가지 않겠어요 갈 거예요	먹을(추측)

출처: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2008, pp.135-138

4) 존대와 낮춤

한국어의 존대법은 다른 언어보다 발달되어 있다. 존대법 중 주체 높임법은 동사 어간에 높임의 접미사 ‘-(으)시’를 붙여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화자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 가족 관계, 친분 관계에 따라 종결 형태를 선택하여 상대 높임을 표현한다(상대 높임법에 따른 존대형, 중립형, 하대형).

<표 3> 존대와 낮춤

시제		예
주체 높임		가시다 가십니다
상대 높임	존대형	철수가 집에 갑니다 지금 12시예요
	중립형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게 늦었으니, 빨리 가세
	하대형	영희 지금 잔다 형은 지금 자

출처: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2008, pp.141-148

5) 부정

문장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우, ‘안’, ‘못’, ‘-지 않(아니하)-’, ‘지 못하-’ 형태를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하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경우 ‘-지 말-’을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한다. 또한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인지(안, -지 않(아니하)-), 주체의 의지가 아닌 능력의 부족이나 외적인 위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의 부정(못, -지 못하-)인지 표현되어 있다.

<표 4> 부정

문장 종류	예
평서문	철수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학교에 못 갔습니다 철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의문문	철수는 학교에 안 갔습니까?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철수는 학교에 못 갔습니까? 철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까?
명령문	집에 가지 말아라
청유문	집에 가지 말자

출처: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2008, pp.152-153

6) 추가된 의미

한국어 동사에는 동사 두 개가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앞에 나온 동사는 어휘적 의미를, 뒤에 있는 동사는 앞 동사의 의미에 어떤 뜻을 더해 주거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때 앞에 있는 동사를 본동사, 뒤에 오는 동사를 보조동사라고 한다.

- (3) 이 소리를 한번 들어 봐.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보조동사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고 있다, -어 가다, -어 오다’ 등은 동작상 중 진행을 나타내고, ‘-어 버리다, 어 있다’ 등은 완료는 나타낸다. 그리고 ‘-게 하다’는 사동을 나타내고, ‘-어지다’는 피동을 나타낸다. ‘-지 않다, -지 말다, -지 못하다’ 등은 부정을 나타내고, ‘-고 싶다, -기는 하다, -어야 하다’ 등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양태) 중 희망, 시인, 당위를 나타낸다.

<표 4> 보조동사

기능	형태	예
진행	가다, 오다, 있다, 들다	신문을 집어 오다
종결	내다, 나다, 버리다, 말다, 빠지다, 치우다	물건을 찾아 내다
봉사	주다, 드리다	어머니를 도와 드리다
시도	보다	잘 생각해 보다
반복	대다	계속 먹어 대다
보유	놓다, 두다, 가지다	그냥 내버려 두다
희망	싶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
상태	있다, 지다	아직 살아 있다
부정	말다, 앓다, 아니하다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불능	못하다	원손을 쓰지 못하다

출처: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2008, pp.229-244

2.1.2 동사가 나타나는 위치

한국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서술어 앞에 와야 한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³⁾.

(4) 주어 + 서술어: 꽃이 핀다.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영희가 의자에 앉았다.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사랑한다.

주어 + 보어 + 서술어: 준호는 어른이 되었다.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천재로 여긴다.

한국어는 이와 같이 주어(S) + 목적어(O) + 서술어(V) 어순을 기본어순으로 하며,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각기 하나씩만 있는 단문(홀문장)이 아닌 복합문(겹문장)은 안은문장(내포문)과 이어진 문장(접속문)으로 나뉘는데, 안은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긴문장 내에서도 서술어는 뒤에 오고, 특히 안은문장의 서술어는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하여 주어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우리는 준이 미국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엄마는 아들이 그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도했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그의 결심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어진 문장에서는 두 개 이상의 홑문장들이 이어지는데, 대등적 관계(-고, -(으)며)의 복합문이든 종속적 관계(-도록, -게, -(으)니, -(으)면)의 복합문이든 이어지는 각각의 홑문장 끝에 서술어가 위치한다.

- (6) 대등적 관계: 영수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철이는 군대에 들어갔다.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
종속적 관계: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다.
봄이 되면, 날씨도 따뜻해지겠군요.

2.2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고, 공용어이며, 한국에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이다(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정).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농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이다.

한국수어는 시각 언어로서,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손(handshape, location, orientation, movement)과 비수지기호(Non-Manual Signals, 얼굴 표정, 눈, 눈썹, 코, 입, 입술, 볼, 턱, 시선, 몸의 방향, 공간 설정 및 활용 등)를 조음자(articulator)로 사용한다⁶⁾.

2.2.1 한국수어의 동사 유형

전통적으로 수어 동사는 동사에 붙는 접사에 기초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¹⁾
¹²⁾.

- (7) 일반동사(plain verb): 인칭과 수에 따라 굴절하지 않고, 행위 장소에 따라 굴절하지 않음
일치동사(agreement verb): 인칭, 수에 따라 굴절하며, 행위 장소에 따라 굴절하지 않음
공간동사(spatial verb): 인칭, 수에 따라 굴절하지 않지만, 행위 장소에 따라 굴절함

한국수어에서 동사 유형별 예는 다음과 같다.

(8) 일반동사



(9) 일치동사



(10) 공간동사



일치동사의 경우, 손의 방향이나 출발점-끝점에 의해 주어와 간접 목적어(누구에게)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공유되고 인지되는 공간(1인칭과 2인칭, 3인칭 공간) 혹은 공간

* 수화 그림과 영상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에서 확인 가능

** 일치동사의 시작점은 행위의 주체(주어), 끝점은 행위의 대상(간접 목적어)을 나타내며, 동사의 Glossing 좌우에 숫자나 문자로 표기한다. 1주다2는 1인칭이 2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2주다1는 2인칭이 1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1주다3는 1인칭이 3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3주다2는 3인칭이 2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3a주다3b는 3인칭 A가 3인칭 B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a주다b는 공간 a에 지정된 사람이 공간 b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낸다.

*** 공간동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시작점과 끝점으로 표현한다. 이사를 부산에서 대전으로 한다면, 부산을 공간 a에 지정하고, 대전을 공간 b에 지정한 후, 이사하다 공간동사를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냄으로써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표현한다.

설정*을 통해 특정 의미(등장 인물 또는 사물, 사건)를 갖게 된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설정된 공간에 일치동사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 주어를 표시한다¹²⁾.

t**

(11) [한국수어] 농학교 교사_a 농학생_b 한국수어_c _a가르치다_b

[한국어] 농학교 교사는 농학생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친다.

t

(12) [한국수어] 농학교 교사_a 농학생_b 한국수어_c _b가르치다_a

[한국어] 농학교 학생은 교사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친다.

수어 문장 (11)과 (12)는 NMS(t 표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수어 단어도 동일하고, 공간 설정도 동일하게 했지만(한국어 단어를 이용하여 주석(gloss)을 달긴 하였으나, 한국어 사용자의 눈으로는 어순도 동일하다), 일치동사의 특성에 따라(시작점이 행위의 주체, 끝점이 행위의 대상) (11)의 주어는 교사이고, (12)의 주어는 농학생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동사(가르친다, 가르쳤다)와 달리 한국수어의 일치동사는 동사만을 보고도 주어와 목적어를 알 수 있다(문장 속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지, 학생이 가르치는지 알 수 있고, 수어 동사만을 떼어 놓고 본다 해도 a가 가르치는지, b가 가르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 동사 중 일반동사(plain verb)과 공간동사(spatial verb)는 인칭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에 담긴 정보만을 보아서 주어를 알 수 없고, 앞의 단어 중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국수어를 배울 때 흔히 보이는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한국 농인들은 손에만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담아 표현하지 않는다. 한국수어는 손도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농인들은 일반동사와 공간동사의 경우에도 동사와 함께 주어를 정보를 표현한다.

* 해당 공간이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자와 청자가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 남자 수화를 특정 공간 a(예, 수화자의 왼쪽 공간)에서 하고(남자_a로 표시, 남자 수화를 공간a에서 했다는 의미), 여자 수화를 특정공간 b(예, 수화자의 오른쪽 공간)에서 하면(여자_b), 문장이 끝나거나 새로 공간이 설정되기 전까지 공간 a는 남자를 의미하고, 공간 b는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공간 설정된 상황에서 ₁만나다_a 수화를 하면 '내가 남자를 만나다'를 의미하게 되고, ₂가르치다_b 수화를 하면 '너는 여자를 가르친다'를 의미하게 된다.

** t는 topic expression의 약자로서,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수어에서 화제화나 주어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NMS(비수지기호)로,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는 등의 NMS가 수화 단어와 함께 표현된다. 수화 단어와 함께 이러한 눈썹과 눈 정보가 동시에 제시된다는 점을 단어 위에 밑줄을 그어 표현한다.

*** 일치동사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11)과 (12) 수어 문장에서는 NMS(t)를 보고도 누가 주어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국수어 동사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t에 의한 주어 결정 및 인식은 논하지 않는다.

**** 이런 측면에서 한국농인의 언어를 수어(手語) 혹은 수화(手話)라는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수어와 미국수어를 영어로는 Korean sign language와 American sign language로 부르고, Korean hand language나 American manual language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농인들의 언어가 손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와 미국수어는 손도 사용하고, 눈썹, 시선, 입, 입술, 공간 등 손 이외의 다양한 조음자를 활용한다.

- (16) a. $\frac{\underline{t}}{\underline{t}}$ 어제 나 집a 가다- \rightarrow_a [한국어: 어제 나는 집에 갔다.]
 b. $\frac{\underline{t}}{\underline{t}}$ 오늘 나 집a 가다- \rightarrow_a [한국어: 오늘 나는 집에 간다.]
 c. $\frac{\underline{t}}{\underline{t}}$ 나 내일 집a 가다- \rightarrow_a [한국어: 내일 나는 집에 갈 것이다.]
 d. $\frac{\underline{t}}{\underline{t}}$ 나 집a 가다- \rightarrow_a [한국어: 나는 집에 간다(현재시제).]

한국수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어제, 오늘, 현재, 10년 전, 과거, 미래 등)를 문장의 앞이나 주어 다음에 표시하여 해당 문장의 시제를 표시한다. 또한 (16)의 d와 같이 따로 시간 표현이 없으면 한국 농인들은 해당 문장을 현재 시제로 이해한다. 문장의 앞에 시제를 표시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t 표현과 함께 표현하여 화제화하고 시제를 상대방과 명백하게 공유하고 문장을 표현한다.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시제 표현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고, 한국수어 학습과 사용, 한국어-한국수어 통역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어에도 시간 부사를 문장에 앞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 부사 없이 문장 맨 마지막에 용언에 과거형 어미를 붙여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제 표현 방식을 기대하고 한국수어를 보거나(한국어처럼 동사에 시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수어 동사에 시제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수어 답지 않은 표현 방식이다.

일부 농학교 교사나 청인 통역사들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끝나다 동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사과 먹다 끝나다


(17)과 같이 먹다 수화 다음에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에 과거형 어미를 붙이듯이(먹었다), 끝나다 수화를 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려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과거 시제보다는 완료 상을 나타낸다. (18)에서 보듯이 한국수어에서 ‘먹다 끝나다’ 수화 표현은 과거 시제가 완료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먹다 끝나다 표현은 미래

한국수어에는 한국어보다 다양한 부정표현 방법이 있다⁴⁾. 한국수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정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한국수어의 부정 유형

구분	부정어	의미	예문
사실 부정	 [아니다]	어떤 사실을 단순부정할 때 쓰임.	[나][바보][NEG1] -해석:나는 바보가 아니다.
의지 부정	 [안하다]	①주체의 의도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임. ②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나 동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쓰임. ③단순부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	[나][술][먹다][안하다] -나는 술을 안 먹는다.
상태 부정	 1. [없다]	상태, 성질, 존재 부정을 할 때 쓰임.	[어제][비][없다]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
	 2. [~적없다]	①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쓰임. ②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 쓰임.	[나][비행기][타다][~적없다] -나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나][흙치다][~적없다] -나는 흙치지 않았다.
완료 부정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완결을 부정할 때 쓰임.	[오늘][아침][아직~하지 않다] -오늘 아침을 먹지 않았다.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

	[아직~하지않다]		
능력 부정		주체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부재, 외부적 요인 등으로 할 수 없을 때 쓰임.	[농인][듣다][못하다] -농인은 듣지 못한다. -농인은 들을 수 없다.
	1. [못하다]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쓰임.	[맹인][보다][할수없다] -맹인은 볼 수 없다. -맹인은 보지 못한다.
	2. [할수없다]		
상황 부정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때 쓰임.	[아이][칼][만지다][금지] -아이가 칼을 만지면 안 된다.
	1. [금지]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쓰임.	[돈][빌리다][거절]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2. [거절]		
		주체의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쓰임.	[어제][모기][물다][잠][불가능] -어제는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3. [불가능]		
	4. [말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도록	[놀다][말다][공부][하자] -놀지 말고 공부하자.

		금지하거나 제지할 때 쓰임.	
기타 부정	[모르다], [비다]	모순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서술어로 쓰여 부정표현을 하는 경우 어휘적 부정문으로 본다.	[나][한자][모르다] -나는 한자를 모른다.

출처: 원성옥 등, 2013, pp.121-123

한국수어 동사의 부정 표현은 (20)과 같이 동사 뒤에 위치한다.

 ^t
(20) 남자_a 가리키기->_a 담배 피우다 의지부정 술 마시다 조금

2.2.6 의미의 추가

한국어 동사는 보조 동사를 본동사 뒤에 나열하여 진행, 종결, 반복 등의 상(aspect) 정보를 추가하거나 봉사, 시도 등의 의미를 추가하거나 희망, 시인, 당위 등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⁴⁾.

진행, 완료, 반복 등의 상 표현은 한국수어에서도 수어 동사 뒤에 완료상과 진행상 반복상을 표시하는 단어를 표시하여 상 표현을 한다(21). 또는 (22)와 같이 동사를 반복하여 진행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t
(22) 남자_a 가리키기->_a 지금 공부하다 공부하다 공부하다 있다(상태긍정)

[한국어] 그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시도와 같은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 시도하다 수어 단어를 동사 뒤에 표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도하다 표현과 함께 NMS(시선)이 함께 표현되어 누가 시도하는지 함께 표현되어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선->2 시선->2
 생각하다 잘하다 시도하다

[한국어] (너) 잘 생각해 봐

시선->1 시선->1
 생각하다 잘하다 시도하다

[한국어] (내가) 잘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달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t t 시선->a
 (24) 아기a 엄마b 밥 b주다a 먹다

[한국어]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 준다.



 t t 시선->b
 엄마a 아들b a시키다b 밥 먹다

[한국어] 엄마가 아들에게 밥을 먹게 하다.

한국수어에서는 한국어의 ‘주다’, ‘-게 하다’와 같은 보조동사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 내지 원인-결과 순서대로 표현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단어 나열 순서나 표현 방식과는 다른 표현이 나타난다.

(26) 구두_a t 시선->b
 기술자_b 만들다_a

[한국어] 구두가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기술자가 구두를 만들었다.

책_a 소설 책_a t 시선->b
 학생_b 읽다_a

[한국어] 소설책이 학생에게 읽혀진다, 학생이 소설책을 읽다.

한국어에서는 ‘-어지다’를 통해 피동 의미를 추가할 수 있으나, 한국수어에는 피동형 어미나 피동 의미를 추가하는 보조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6)과 같이 어순에 관계없이* 주어를 NMS(t)로 특정하고, 만들다 동사나 읽다 동사를 하면서 NMS(시선 또는 몸의 방향)를 통해 주어를 다시 한 번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한국수어는 어떤 경우는 한국어처럼 두 개 이상의 동사를 나열하여 의미를 추가하거나 주어의 행위를 추가하나, 한국어 보조동사처럼 형태나 어순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한국수어 나름의 행위 나열 순서와 표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2.6 동사의 위치

한국어는 SOV가 기본 어순으로, 동사는 맨 뒤에 위치하고, 목적어와 동사를 꾸미는 말이 붙거나 부사어, 보어 등의 정보들이 추가되면 모두 동사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특히 안은문장(겉문장 중 내포문)은 안은문장의 동사 앞에 안긴문장이 위치하므로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제시되고, 주절의 주어와 동사 간 거리가 멀어 주어-동사 호응 관계(이 주어의 동사가 무엇이고,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한국어 동사 자체 또는 함께 제시되는 정보 등에 주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³⁾.

이에 비해 한국수어 동사 중 일치동사는 시작점-끝점 또는 손의 방향(source-target)으로 주어를 표시하고, 일반동사와 공간동사의 경우도 일치동사처럼 인칭에 따라 굴절하지는 않으나, 문장 앞에서 공간 설정이 된 경우, 공간을 활용하여 NMS(시선, 몸의 방향, 역할 변경,

* 한국수어는 SOV 기본 어순을 따르고, 미국수어는 SVO 기본 어순을 따른다는 연구도 있으나, 이는 단문이고 NMS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한 맥락(한국어 문장 보여주고 수화하기)에 한정하고, 담화 수준의 장문이나 NMS가 자유롭게 충분히 활용되는 경우, 농인들의 수어는 free order 특성을 보인다. free order 는 ‘자유로운 어순’, ‘어순이 자유롭다’로 번역되어, 한국수어는 어순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기왕이면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오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free order 특성은 농인들은 수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어순에 의지하지 않는다’, ‘어순을 의식하지 않는다’,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26)의 수어 문장 예와 같이 ‘구두 기술자’, ‘책 학생’ 같이 어순에 관계없이, 어순을 의식하지 않고, t나 시선과 같은 NMS를 통해 주어를 특정하고 이해함을 의미한다.

h. 어머니 걱정하다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Role shift: 아버지 Role shift: 어머니

i.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 걱정하다

[한국어]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27)과 같이 한국수어 동사도 맨 뒤에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어 정보를 NMS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28)의 경우처럼 한국어와 달리, 입원하다 수어 동사가 주어 가까이 위치하고, 왜 입원하였는지 정보는 뒤에 제시하여 한국어(어머니가 ~~~ 입원하다)와 달리 한국수어(나 어머니 병원 입원하다)는 주어와 동사간의 거리가 가깝게 제시되어 주어-동사 간의 호응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9)의 예들은 각 주어(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하는 동사 피곤하다와 걱정하다가 다양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수어의 동사가 일치동사의 경우 시작점-끝점을 통해, 일반동사와 공간동사는 NMS(시선, 몸의 방향, 역할 변경 등)를 통해 주어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3. 수화의 다양성

3.1 수화의 다양성: 수지 한국어와 한국 수어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한국수어를 보존하고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대화하고, 수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수화’ 대신 ‘수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해당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다양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손을 표현양식으로 사용하고 손을 움직이고 대화를 하고 한국어-수화 통역을 하는 경우에도 ‘수화’ 또는 ‘수어’라고 불리는 언어가 반드시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가 아닐 수 있다. 실지로는 ‘한국어’가 ‘수화’나 ‘수어’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화’의 다양성이 왜 존재하는지 언어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3.1.1 수지 한국어

한국수어(KSL)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어대응수화’나 ‘문법성 수화’, ‘아식 수화’, ‘한글식 수화’라는 표현보다는 ‘수지 한국어’나 ‘손 한국어’, ‘수지 구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9) 10)}. 한국어의 음성 버전, 문자 버전(한글), 점자 버전(한글점자) 등이 있듯이 한국어의 손 버전(Signed Korean이라는 용어는 한국어인데 손을 표현양식으로 한 한국어라는 뜻)이 존재한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는 특정목적을 위해 고안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이다(불완전한 한국어이다).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수어의 단어들을 차용해 와,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한다. 즉, 한국어 어순에 따라, 한국어 단어의 뜻과 용법에 따라 단어를 나열하고 사용한다. 이는 수지 한국어가 한국어 기반 언어이고, 한국어 문장에 담긴 정보를 가능한 한 충실히 농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3.1.2 한국수어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고, 공용어이며, 한국에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이다.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농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이다⁶⁾.

한국수어는 시각 언어로서,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손(hand shape, location, orientation, movement)과 비수지기호(Non-Manual Signals, 얼굴 표정, 눈, 눈썹, 코, 입, 입술, 볼, 턱, 시선, 몸의 방향, 공간 설정 및 활용 등)를 조음자(articulator)로 사용한다.

한국수어는 한국어가 아니며, 수지 한국어와도 다른 언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어 동사와 한국수어 동사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른 다른 문장 구성 방식을 보인다.

3.2 한국어 동사 특성과 수지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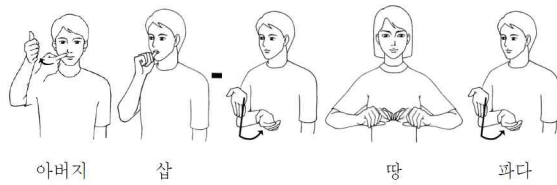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SK)는 한국수어 단어를 차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수어 단어를 한국수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한국수어의 뜻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한국어 단어)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수지 한국어는 한글점자처럼 한국어를 손(한글점자의 경우 6점자)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자가 수지 한국어를 산출할 때는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한국어로 떠오른 생각)을 통역(interpretation)이 아니라 음역(transliteration)을 하게 된다. 즉, 한국어 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국어 단어 나열 순서에 따라 한국어 단어(또는 형태소)에 해당하는 한국수화 단어를 찾아 나열해 간다. 이 때 수지 한국어(SK)는 한국어(Korean)이므로, 문장의 구성과 완성, 문장 성립 여부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¹⁰⁾.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의 어순과 단어 특성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고 완성하므로, 한국어 동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 동사의 특성에 따라 수지 한국어 문장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2.1 참여자 수와 역할



(30) [책상에 있던 연필이 사라졌다.]
【주어(명사절)+ 서술어(동사)】



(31) [아버지가 삽으로 땅을 파신다.]
【주어(명사)+ 부사어(명사)+ 목적어(명사)+ 서술어(동사)】

가라앉다' 冢

액체 표면에 떠 있거나 섞여 있는 것이 밑바닥으로 내려 앉다.
 ¶ 침전물이 가라앉았다.
【물+밑】



(32)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러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손등이 닿게 뒀다가 아래로 내린다.



(33) [돌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주어(명사)+ 서술어(동사)】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수어에서 사용되는 동사, 혹은 한국어 단어와 수어 단어를 결합하여 고안 (invention)한 동사(32, 물+ 밑)를 그와 뜻이 같다고 여겨지는 한국어 동사(가라앉다)처럼 사용한다¹³⁾.

따라서 자동사 앞에는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시된다(한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수화 표현은 하지 않는다. 과거 농학교 등에서는 지화를 사용하여 ‘은’이나 ‘는’ 등을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기도 했다). 즉, (30)에서처럼 사라지다 앞에 연필 수화를 하고 있다 수화 앞에 책상 수화를 하며, (33)처럼 가라앉다 수화 앞에 돌 수화를 하여 해당 동사의 주어를 표시한다.

또한 타동사 앞에는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동사 앞에 표현한다. 즉, (31)에서처럼 주어에 해당하는 아버지 수화를 하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땅 수화를 하여 파다 수화의 주어가 아버지이고 목적어는 땅임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수지 한국어(SK)는 한국어의 기본어순에 따라 자동사의 경우 SV, 타동사의 경우 SOV 어순을 엄격히 따른다. 과거와 달리 최근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 조사(은/는, 이/가, 을/를)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므로, 한국어처럼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역할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동사가 행위의 주체 하나만을 요구하는 경우, 동사 앞에 제시된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행위의 주체와 행위 대상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동사 앞의 두 개의 참여자를 순서에 따라 행위 주체와 대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수지 한국어는 손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 말과 수지 한국어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동시적 의사소통[Simultaneous communication], 줄여서 심킴이라 흔히 부른다), 한국어에 담긴 정보(주어와 목적어 등)를 음성이나 입 모양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순도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 (34) 한국어: 나는 너를 좋아한다.
수지 한국어: 나 너 좋아하다
- (35) 한국어: 나를 너는 좋아한다.
수지 한국어: 나 너 좋아하다

또한 한국어와 같이 조사를 활용해 참여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순에만 의지해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지 한국어 문장이 한국어로 어떤 뜻인지 구분하는 것(33에서 a인지 b인지)이 어렵게 된다.



- (36) 수지 한국어: 문득 친구 생각이 났다.
한국어: a. 문득 친구 생각이 났다.
b. 문득 친구가 (무슨) 생각이 났다.

3.2.2 문장의 종류

수지 한국어에도 한국어에서처럼 동사 다음에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수화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의 종류를 알게 한다¹⁴⁾.



(37) 평서문

수화: 선생님+ 오시다+ 끝+ -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8) 의문문

수화: 선생님+ 오시다+ 끝+ -습니까
 국어: 선생님이 오셨습니까?



(39) 명령문

수화: 여기+ 앉다+ 부탁하다
 국어: 여기에 앉으십시오.



(40) 청유문

수화: 같이+ 저녁+ 먹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같이 저녁을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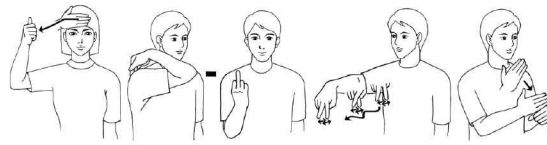


(41) 감탄문

수화: 빨리+ 오다+ -구나
 국어: 빨리 왔구먼!

3.2.3 시제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동사에서처럼 수화 동사 뒤에 시제를 나타내는 수화 표현을 동사 뒤에 추가하여 시제를 나타낸다^{13) 14)}.



할아버지 뒷산 산책하다 중(中)

[할아버지는 뒷산에서 산책하고 계시다.]

【주어(명사)+ 부사어(명사구)+ 서술어{동사+ 시제 표지(진행: 중)}】

(42) 현재 시제



촬영하다 수화 가지다 사건 편집하다 끝

[촬영한 수화를 사건으로 편집하였다.]

【주+ 부사어(명사절)+ 목적어(명사)+ 서술어{동사+ 시제 표지(과거: 끝)}】

(43) 과거 시제



나 대학 1학년 때 휴학하다 계획

[나는 대학 1학년 때 휴학하겠다.]

【주어(대명사)+ 부사어(명사구)+ 서술어{동사+ 시제 표지(미래: 계획)}】

(44) 미래 시제

3.2.4 존재와 낮춤

수지 한국어에서는 주체나 상대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동사에서처럼 높임을 나타내는 수화 표현을 동사 뒤에 추가하여 주체나 상대 높임을 표현한다.



(45) 수화: 어제+ 할아버지+ 서울+ 오시다+ -습니다
 국어: 어제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오셨습니다(오+ -시-+ 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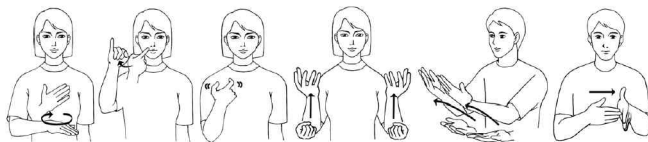
- (46) 수화: 어머니+ 책+ 많이+ 읽다+ -합니다
 국어: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으십니다(읽--(으)시--합니다).



- (47) 수화: 성함+ 무엇+ -하니까
 국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48) 수화: 아버지+ 많이+ 먹다+ 드리다
 국어: 아버지, 많이 드세요.



우리 어머니 환갑 잔치 **드리다** 끝

- (49) [우리는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베풀었다.]
 【주어(대명사)+ 목적어(명사구)+ 서술어{동사+ 시제 표지(과거: 끝)}】

그러나 수화 한국어의 경우도 ‘드리다’와 같이 ‘주다’의 높임말을 있는 경우(예 50, 5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화 동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동사에 주체나 상대의 높임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52).



커피 드리다/
 묻는 표정

- (50) [커피 드릴까요?]
 【☞+ 목적어(명사)+ 서술어{동사/종결 표정(묻는 표정)}】



우리 스승 날 선생 계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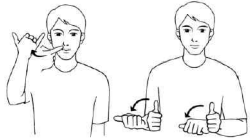


드리다 끝

(51)

[우리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서 선물을 드렸다.]

【주어(대명사)+ 부사어(명사구)+ 부사어(명사+ 조사)+ 목적어(명사)+ 서술어(동사+ 시제 표지(과거: 끝))】



부모 돌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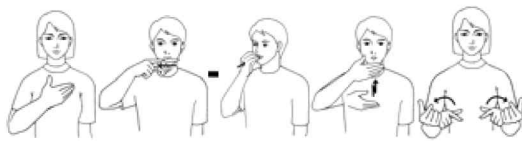
(52)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주어(명사)+ 서술어(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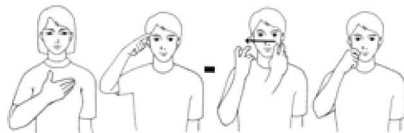
3.2.5 부정

수화 한국에서는 한국어의 ‘안’ 부정과 ‘못’ 부정에 해당하는 수화 표현을 동사 뒤에 추가하여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¹⁴⁾.



(53)

수화: 나+ 토마토+ 먹다+ 아니다
국어: 나는 토마토를 안 먹는다.



(54)

수화: 나+ 똑똑하다+ 못하다
국어: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 (55) 수화: 텔레비전+ 보다+ 말다
 국어: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말+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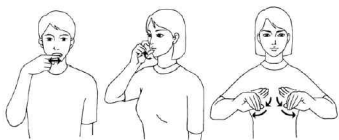
이중 부정의 경우도, 한국어의 이중 부정에 해당하는 부정 표현을 모두 표현한다.



- (56) 수화: 약속+ 지키다+ 말다+ 할 수 없다
 국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3.2.6. 추가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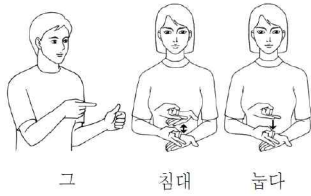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동사에서 어미나 보조 동사를 통해 추가된 의미(사동이나 피동, 진행, 완료, 시도 등)를 별도의 표지 없이 표현하지 않거나 동사 뒤에 추가된 의미에 해당하는 수화 표현을 추가하여 표현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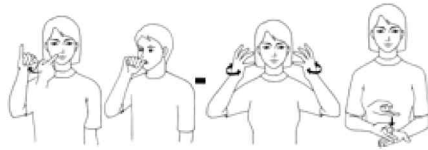
- (57) 소금 물 녹다
 [소금은 물에 녹는다.]



- (58) 수화: 언니+ 얼음+ 녹이다
 국어: 언니가 얼음을 녹인다.



- (59) [그는 침대에 누웠다.]
 【주어(대명사)+ 부사어(명사)+ 서술어(동사)】



- (60) 수화: 어머니+아기+눅히다
 국어: 어머니가 아기를 눅힌다.

(57)과 (59)에서 주체가 해당 동작을 하는 주동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58)와 (59)의 사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경우의 예다.



- (61) 수화: 개+강아지+젓+먹이다
 국어: 개가 강아지에게 젓을 먹인다.

(61)은 먹다 수화 다음에 주다 수화를 하여 한국어 '먹이다'나 '먹여 주다'에 담긴 사동 또는 봉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의 예다.



- (62) 사동문: 수화: 인부들+길+넓히다
 국어: 인부들이 길을 넓게 했다.
 인부들이 길이 넓게 했다.

(62)는 넓다 수화 다음에 만들다 수화를 하여 한국어 '넓게 하다'에 담긴 사동의 의미를 번달하는 경우의 예다.



사동문: 수화: 아주머니+ 동생+ 머리+ 예쁘다+ 만들다

국어: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를 예쁘게 했다.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가 예쁘게 했다.

(63)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를 예뻐지게 했다.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가 예뻐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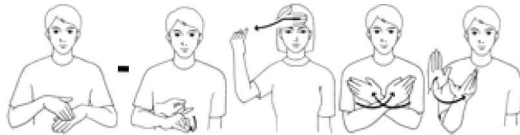
(63)은 예쁘다 수화 다음에 만들다 수화를 하여, 한국어 ‘예뻐지게 하다’에 담긴 사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의 예다.



수화: 그(‘에게’를 포함)+ 경비+ 책임+ 지우다(=말기다)+ 끝

(64) 국어: 그에게 경비 책임을 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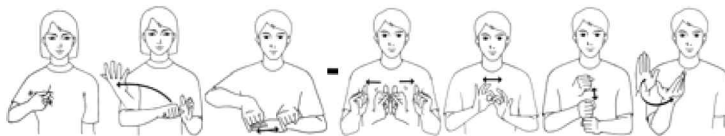
(64)는 책임을 지다 수화 다음에 말기다 수화를 하여 한국어 ‘책임을 지우다’에 담긴 사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의 예다.



수화: 손녀+ 할머니+ 안다+ 되다

(65) 국어: 손녀가 할머니에게 안긴다.

(65)는 안다 수화 다음에 되다 수화를 하여, 한국어 ‘안기다’에 담긴 피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의 예다



수화: 이+ 옷+ 유명하다+ 디자이너+ 의하다+ 만들다+ 되다

(66) 국어: 이 옷은 유명한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진다.

(66)은 만들다 수화 다음에 되다 수화를 하여, 한국어 ‘만들어지다’에 담긴 피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의 예다.



- (67) 수화: 강도+ 경찰+ 잡히다+ 끝
 국어: 강도가 경찰에게 잡혔다.

그러나 (67)과 같이 (누가 누구를) 잡다 수화를 주동문과 똑같이 수화 동사 뒤에 피동의 의미를 추가하는 수화 표현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수화: 토요일+ 때문+ 차가 밀리다+ 같다
 (68) 국어: 토요일이라서 차가 밀리나보다.

(보다: 추측의 의미) (보다: 수어의 뜻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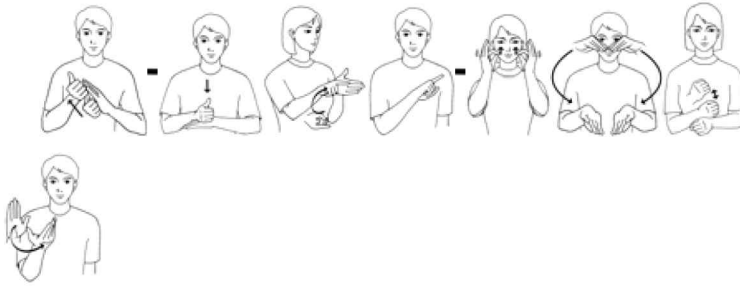
- 수화: 내일+ 눈+ 내리다+ 아마
 (69) 국어: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68)과 (69)는 수화 동사 뒤에 같다 수화나 아마 수화를 추가하여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의 예다.



- 수화: 그+ 나+ 보다+ 싶다
 (70) 국어: 그는 나를 보고 싶어 한다.

(70)은 보다 수화 뒤에 원하다 수화를 추가하여 희망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의 예다.



- (71) 수화: 성공+ 위하다+ 최선을 다+ 하다+ 되다
 국어: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71)은 하다 수화 뒤에 되다 수화를 추가하여 당위의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의 예다.



- (71) 수화: 내일+ 오시다+ 아니다+ 되다
 국어: 내일은 안 오셔도 됩니다.

(71)은 오지 않다 수화 뒤에 되다 수화를 추가하여 허락의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의 예다.



- (72) 수화: 미수+ 고향+ 가다+ 생각하다+ 중(中)
 국어: 미수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72)는 가다 수화 뒤에 생각하다 수화를 추가하여 의도의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의 예다.



- (73) a. 수화: 우선+ 먹다+ 해보다/같이 하자는 표정
 국어: 우선 먹고 보자.



친구들 일일이 만나다 보다

b. [친구들을 일일이 만나보았다.]

【주어+ 목적어(명사)+ 부사어(부사)+ 서술어(동사구=동사+ 보조동사)】



나 이렇게 살다 오다

c.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c.

【주어(대명사)+ 부사어(부사)+ 서술어(동사구=동사+ 보조동사)】

(73)은 먹다 혹은 만나다 수화 뒤에 해보다 혹은 보다 수화를 추가하여 시도의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의 예(a와 b)다. c는 살다 수화 뒤에 오다 수화를 추가하여 진행의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의 예다.

3.2.7. 동사가 나타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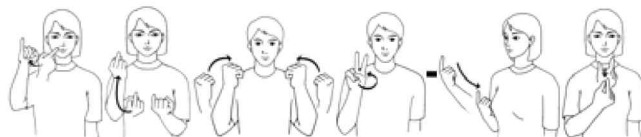
수지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의 위치는 한국어 문장에서처럼 홑문장의 경우 모든 기본 문형에서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한다.

(31)의 경우처럼 겹문장 중 이어진 문장(접속문)의 경우, 두 개의 홑문장에 각각 주어와 동사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74) 수화: 강+맑다+하늘+푸르다
 국어: 강은 맑으며, 하늘은 푸르다.

겹문장 중 안은문장(내포문)의 경우, 안긴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전체 문장 중에 나타나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안긴문장 앞에, 안은문장의 동사는 안긴문장 뒤에 온다.



(74) 수화: 어머니+오빠+건강하다+돌아오다+바라다
 국어: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74)의 예에서 돌아오다 수화는 주어 오빠의 서술어이고, 바라다는 수화는 주어 어머니의 서술어이다. 이와 같이 수지 한국어는 겹문장 중 안은문장의 경우 한국어 어순에 따라 한국어 단어마다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켜 수화를 하므로 한국어 문장에서처럼 주절의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어머니 바라다)가 멀게 표현되고, 특히 안은문장의 동사는 홑문장에서처럼 문장의 맨 마지막에 표현된다.

3.3 한국수어 동사 특성과 한국수어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KSL)는 수지 한국어(SK)와 달리, 한국어가 아니며,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단어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켜 가며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언어인 한국수어 문법에 따라(한국어 문법과는 다르다) 한국수어 문장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특히 한국어 동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수어 동사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수어 문장을 표현한다^{3) 4) 5) 8)}.

3.3.1 한국수어 동사 유형

한국수어 일반동사(plain verb)는 인칭과 행위 장소에 따른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손에 담긴 정보만으로는 행위의 주체나 대상을 알 수 없으며, 공간 설정 및 활용, 시선이나 몸의 방향 등을 통해 행위의 주체나 대상을 표현한다^{15) 16) 17)}.

_____t _____t 시선->a 시선->b
 (75) 동해물a 백두산b 마르다 닳다

한국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다.

_____t _____t 시선->b 시선->a
 (76) 동해물a 백두산b 닳다 마르다

한국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다.

(75)와 (76)는 한국어로는 같은 의미로, 동해물 수화와 백두산 수화를 특정 공간에서 표현하여 공간 설정하고(동해물 수화는 왼쪽에서, 백두산 수화는 오른쪽에서) 마르다 동사 수화와 닳다 동사 수화를 할 때는 몸의 방향이나 시선을 설정된 공간으로 향하여 해당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다.

_____t _____t _____t _____t 몸의방향->a
 _____t _____t _____t _____t _____t
 (77) 나 부모a 나 낳다 나 감사하다 나 감사하다

한국어: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는 부모님께 감사한다(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77)은 a 공간(예, 수화자의 오른쪽)을 나의 부모님으로 설정하고, 낳다 동사의 주체가 부

모이고, 감사하다 동사의 주체는 나이고 대상은 부모님임을 시선이나 몸의 방향을 그 공간을 향하게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수어에서는 참여자(부모님과 나) 중 누가 행위 주체인지를 NMS(t와 시선)을 통해 표현하여 동사를 보면 누가 낳고 누가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어는 다층적 언어(Multitier langu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치 동사(agreement verb)의 경우, 인칭에 따라 시작점-끝점 또는 손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한다.

- _____t
- (11) [한국수어] 농학교 교사a 농학생b 한국수어c a가르치다b
 [한국어] 농학교 교사는 농학생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친다.

(11)의 예는 두 참여자(교사와 농학생)가 공간 설정되고(예, 교사는 왼쪽, 농학생은 오른쪽), 가르치다 동사 시작점에 의해 교사가 주어임을 표시하고 있다. 일치 동사는 손에 담긴 정보(위치나 방향)를 통해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알 수 있다.

공간 동사(spatial verb)의 경우, 인칭에 따른 변화는 없으나, 행위 장소에 따라 변하는 동사이다.

- _____t _____t 시선->a 시선->b
- (78) 남자a 여자b 서울c 수원d 이사하다c->d 이사하다d->c
 [한국어] 남자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고, 여자는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하다

- _____t _____t _____t
- (79) 수화통역a 무엇 한국어b 한국수어c 바꾸다b->c 그리고 바꾸다c->b

가리키기->d** 의미하다

[한국어] 수화통역은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8)은 두 참여자(남자와 여자)를 공간 설정하고, 각 참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하는지를 이사하다 수화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 표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위의 주체는 시선을 통해 표현된다.

(79)는 무엇을 무엇으로 통역하는지를 각 언어를 공간 설정한 상태에서 바꾸다 수화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3.3.2 문장의 종류

* 한국수어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는지(어찌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수어 동사와 함께 동시에(층층이) 표현된다. (77)의 예에서 감사하다 수화 표현에는 ‘감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선을 통해 행위의 주체가, 몸의 방향을 통해 행위 대상이 동시에 다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국어와 달리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동사의 의미와 함께 파악할 수 있다.

** d는 바꾸다 수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b와 c 중간 정도의 공간

(15)에서처럼 한국수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동사의 어미를 활용하거나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수화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의 종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NMS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표현한다. 즉, 한국수어 동사에는 한국어 동사처럼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담겨 있지 않으나, NMS를 통해 표현된 정보가 동시에 다층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어 동사와 함께 다층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다.

3.3.3 시제

(1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수어 동사를 통해서는 시제를 알 수 없으며, 문장의 맨 앞이나 주어 다음에 표현된 시제 정보(시간 부사)를 통해서만 시제를 알 수 있다. 특히 문장 앞에서 시제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인들은 현재 시제를 문장 전체를 해석한다. 이는 시제 정보가 문장의 맨 뒤 동사에 표현되어 있는 한국어(수지 한국어 포함)와는 매우 다른 측면이다.

3.3.4 존대와 낮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주어나 상대를 높이기 위한 명사나 동사 표현이나 활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행위의 주체나 상대가 아버지나 어른이라고 하여 먹다 수화나 가르치다 수화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19) a처럼 역할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만두다 수화나 괴롭다 수화가 다른 행위 주체와 달리 행위 주체가 아버지여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19) b처럼 역할 변경(수화자가 아버지가 돼서 수화하기)이 일어나고, 구성된 행위(아버지답게 수화하기)가 수화 표현에 활용되는 경우 그만두다 수화와 괴롭다 수화에 행위 주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행위 주체가 아버지임을 나타내고, 수화자가 아버지가 되어, 1인칭 수화를 하고 아버지다운 몸짓과 동작을 하기 때문이다.

	구성된 행위: 딸처럼 수화하기
	역할 변경: 딸
<u>t</u>	<u>t</u> <u>시선->1</u> <u>시선->2</u>
(80) 나 딸a a말하다1 무엇 나 과자 먹다 원하다 과자 사다 1부탁하다2	
	[한국어] 딸이 나에게 과자를 먹고 싶으니 사 달라고 부탁했다.

(80)에서도 역할 변경이 일어나, 수화자가 딸이 되어 1인칭으로 수화를 한다. 이때 구성된 행위까지 나타나 딸처럼 수화를 하면서, 표정과 몸짓이 달라지고 수어 동사의 기본형과는 움직이거나 멈추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5 부정

한국수어의 부정문은 그 부정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문장이 나타난다. 한국수어는 한국어

나 수지 한국어와 달리 다양한 부정 표현이 존재하며, 의미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정문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81) t 나 학생 사실부정
[한국어] 나는 학생이 아니다.
- (82) t 나 담배-피우다 의지부정 술 마시다 조금
[한국어] 나는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조금 한다.
- (83) t 여자_a 가리키기-_{>a} 예쁘다 상태부정
[한국어] 그 여자는 예쁘지 않다.
- (84) t 어제 아침 먹다 완료부정
[한국어] 어제 아침을 먹지 않았다.
- (85) t 농인 듣다 능력부정
[한국어] 농인은 듣지 못한다.
- (86) 돈 ₁빌려주다₂ 상황부정(거절)
[한국어] 돈을 너에게 빌려주지 않겠다.
- (87) 도서관_a 잡담하다_a 상황부정(금지)
[한국어] 도서관에서 잡담하면 안된다.

3.3.6 의미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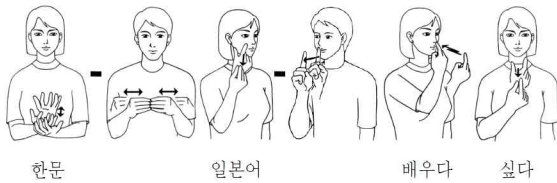
한국수어 동사에는 (21)과 같은 수화 표현을 동사 뒤에 추가하여 다양한 상을 표현할 수 있다. (22)와 같이 동사를 반복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 (88) t 어제 ₂전화하다₁ when t 나 고객_a 1회의하다_a 진행상
[한국어] 어제 니가 전화했을 때, 나는 고객과 회의 중이었다.
- (89) t 나 도서관_a 책_a 읽다 완료상 after 식당_b 분류사: 1인 _a가다_b
[한국어]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서 식당에 갔다.
- (90) t 나 아버지_a 새벽 시선->a 일어나다 운동하다 반복상

[한국어]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신다.

그러나 (24)와 (25), (2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수어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사동형 어미나 피동형 어미가 존재하지 않고, 한국어의 ‘-게 하다’, ‘-어지다’와 같은 보조 동사를 붙여 사동문과 피동문을 만들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사동이나 피동 동사에 표현된 여러 동작이나 행위를 행위 주체별로 나누어 표현한다(한국어 ‘먹게 하다’해서 먹는 사람은 아들이고, 시키는 사람은 엄마이다). 그리고 수어 동사에는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25)의 예에서 시키다 동사는 일치동사이므로, 시작점을 통해 주어를 표시하고(시작점이 a이므로, 주체는 엄마), 밥 먹다 동사는 일반동사이므로, 시선을 통해 주어를 표시한다(시선이 b를 향하므로, 주체는 아들).

- | | | | | |
|---------|-----------------|-----------------|-----------------|---------------------------|
| | | <u>시선->1</u> | <u>시선->1</u> | |
| (91) a. | 일본어 배우다 | 원하다 | | [한국어]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
| | | <u>시선->1</u> | <u>시선->2</u> | |
| b. | 일본어 배우다 | 원하다 | | [한국어] 너는 내가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
| | | <u>시선->2</u> | <u>시선->1</u> | |
| c. | 일본어 배우다 | 원하다 | | [한국어] 나는 네가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
| | | <u>시선->2</u> | <u>시선->2</u> | |
| d. | 일본어 배우다 | 원하다 | | [한국어] 너는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
| | <u>시선->1</u> | | <u>시선->2</u> | |
| e. | 원하다 | 무엇 | 일본어 배우다 | [한국어] 나는 네가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



- (92) [한문과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 목적어(명사구)+ 서술어(동사구=동사+ 보조동사)】

(91) a와 같은 한국수어 문장은 한국어로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와 같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92)에서와 같이 원하다 동사를 수지 한국어에서 희망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사용하듯이 한국수어에서도 한국어처럼 원하다 수화가 보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1) b-d에서 보듯이 NMS(시선)을 통해 원하다 동사의 주체를 달리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의미의 문장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91)의 e와 같이 원하다 동사를 앞에 먼저 이야기하는 수어 문장도 가능하다.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다른 동사(본동사) 뒤에 쓰여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지만, 문장의 구조나 문장성분의 구실과 수 등을 결정하는 것은 본동사이다. (9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수어 원하다 동사는 앞의 동사와는 다른 행위 주체를 표시할 수 있고, 위치도 다른 동사 뒤에서만 사용되지도 않는다. 한국수어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한국어나 수지

문법에 맞추어 한국어 단어 사용하면서, 한국어보다는 한국어와 너무 닮은 수화(유사 한국어체계)가 사용되고 보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화로 불러 지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담겨 있는 정보가 아주 상이한 두 종류의 수화를 살펴보고, 각 수화가 왜 다른 정보를 수화 표현에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수화 한국어 범주에 해당되는 수화는 한국어에서 파생된 수화 표현으로, 한국어 기반으로 수화를 표현하고, 수화 단어를 사용한다. 수화 한국어(signed Korean) 표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참여자의 수는 하나이며, 동사 앞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때 한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나 주어임을 표시하는 표지 없이 제시한다. 따라서 어순에 의존하여 동사에 앞에 표시된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이해하게 된다.
- 2)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참여자의 수는 둘이며, 동사 앞에 주어와 목적어 순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때 한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혹은 그 역할이 주어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표지 없이 제시한다. 따라서 어순에 의존하여 동사 앞에 나열된 두 개의 참여자 중 첫 번째 참여자를 주어로, 두 번째 참여자를 목적어로 이해하게 된다.
- 3) 문장의 종류(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는 동사 뒤에 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처럼 문장의 종류를 표시하는 수화 표현을 동사 뒤에 표현한다.
- 4) 시제는 동사 뒤에 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에서처럼 시제를 표시하는 수화 표현을 동사 뒤에 표현하며, 시제 표시가 없는 경우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5) 주체와 상대의 높임은 '드시다'와 같이 한국어의 높임말에 해당하는 수화표현이 있는 경우 사용하고, 한국어처럼 동사에 존대를 나타내는 수화 표현을 추가하지는 않으며, 동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 6) 부정은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있으며, '안' 부정의 경우, 동사 뒤에 아니다 수화를 표현하고, '못' 부정의 경우, 동사 뒤에 못하다 수화를 표현한다.
- 7) 한국어의 본동사와 보조동사처럼 동사 뒤에 동사를 추가하여 사동이나 피동,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한다.
- 8) 동사의 위치는 홑문장의 경우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며, 겹문장 중 이어진 문장은 각 동사는 행위 주체 다음에 제시된다(주어1 동사1 주어2 동사2). 겹문장 중 안은문장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안긴문장을 포함하여 주어와 동사 간에 거리가 멀고, 안은문장의 동사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주어1 주어2 동사2 주어1).

한국 수어 범주에 해당되는 수화는 한국어와는 독립된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시각 언어답게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수어 단어를 사용한다. 한국 수어(Korean sign language) 표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동사 앞에 주어를 표현하고, 공간 설정하고, NMS(t, 공간 설정, 시선, 몸의 방향 등)를 통해 주어임을 표시한다.
- 2)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동사 앞에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제시하고, 공간 설정하고(어순은 중요하지 않음) NMS(t, 시작점-끝점, 손의 방향, 시선, 몸의 방향 등)을 통해 행위

의 주체와 대상을 표시한다.

- 3) 문장의 종류는 동사와 함께 NMS(얼굴 표정)를 통해 표현한다.
- 4) 시제는 동사에 표현되지 않으며, 문장의 맨 앞 또는 주어 다음에 표현한다.
- 5) 존대와 낮춤은 동사에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할 변경 및 구성된 행위를 통해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 표현할 때 주어와 상대에 따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
- 6) 부정은 사실부정, 의지부정, 능력부정, 상태부정, 상황부정, 완료부정 등 다양한 부정이 있으면, 동사 뒤에 표현한다.
- 7) 동사의 상(aspect, 진행상, 완료상, 반복상 등)은 동사 뒤에 표시하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별도의 동사를 추가하여 겹문장으로 표현한다. 이 때 수화 표현은 동사 뒤에 표현하거나 명제에 해당하는 문장에 앞에 표현하며, NMS(시선 등)를 통해 누구의 태도인지도 표현한다.
- 8) 동사를 표현하기 전에 주어나 목적어 등의 참여자를 제시하고 공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홀문장의 경우, 주어나 목적어보다 뒤에 동사가 표현된다. 그러나 겹문장 중 이어진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주어가 공간 설정된 경우, 해당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는 어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S1 S2 V1 V2, S1 S2 V2 V1, S2 S1 V1 V2, S2 S1 V2 V1 모두 가능). 겹문장 중 안은문장의 경우,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사, 안긴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가깝게 표현된다(S1 V1 S2 V2).

이와 같이 손을 표현양식으로 하는 수화일지라도, 한국어 기반 수화인가(수지 한국어), 한국수어 기반 수화인가(한국수어)에 따라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수화가 존재하고, 청인과 농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수화가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수어 및 수지 한국어 사용자 집단별 특성과 서로 다른 수화 사용자들의 다른 수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혹은 오해하는지), 한국수어 사용자들이 어떤 상황이나 누구와 대화할 때 수지 한국어를 사용하는지(혹은 수지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섞어서 사용하는지, 언제 코드 스위칭 하는지), 수지 한국어 사용자가 한국 수어의 어떤 측면을 학습하기 용이하고 어려운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서로 다른 수화 사용자들(한국수어 사용자와 수지 한국어 사용자)의 간의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임호빈·홍경표·장숙인 (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신개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2) 이봉원 (2015). 언어치료를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학지사.
- 3) 국립국어원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4) 원성욱·허일·김만영·김유미·남기현·배재만·변강석 (2013). 수화통역의 기초. 서울: 교우사.
- 5) 남기현·원성욱·허일 (2010).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특수교육 연구, 17(1), 157-178.
- 6) 원성욱 (2013). 수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7) 수화 그림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 8) 남기현·원성욱·허일 (2011). 한국수화 래너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언어 연구, 26(4), 767-789.

- 9) 김칠관, 윤병천(2011). 응용언어학개론. 서울: 양서원.
- 10) 허일·김경진 (2013).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차이에 따른 수화통역 과정에서의 고려점. 한국복지대학교 논문집, 223-246.
- 11) Padden C. A. (1990). The relation between space and grammar in ASL verb morphology. In C. Lucas(Ed.), Sign language research: Theoretical issues(pp. 118-132).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12) Fischer, S. & Gough, B. (1978). Verbs in ASL.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 13)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2007). 한국수화 문형사전. 서울: 동기관.
- 14)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2010).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법 교육.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15) Sutton-spence, R. & Woll, B. (1998).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Johnston, T. & Schembri, A.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7) Valli, C. Lucas, C., & Mulrooney, K. J. (2005).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Differences of Signed Korean and Korean Sign language by Characteristics of Verb

Il H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se the differences of signed Korean and Korean sign language in Korean. Because sign Korean is expressed on the base of Korean, SK characteristics was analysed in the light of Korean verb characteristics(participant number and role, sentence types, a tense, expression with respect, negation, addition of meanings, location of verb). And also Korean sign language was analysed in the light of KSL verb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analysis, the differences of SK and KSL sentence were presented.

Keyword: Korean sign language, signed Korean, verb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